

## 국내 중독 양상에 대한 고찰

고재욱, 황정연, 안돈희

국립의료원 중독관리센터 연구실

**목적 :** 급성 중독은 초기의 정보 획득 및 적절한 처치가 결과를 좌우하고 예방이 가능한 측면이 있기에 역학적인 접근이 중요시 된다. 그러나, 국내에는 중독의 발생 양상을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는 전문적 시스템이 미비한 실정이다. 이에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의 지원으로 국립의료원에서는 중독관리센터를 추진하고 있으며, 최근 국내 중독양상의 파악을 시도하였다.

**방법:** ① 문헌검색 ② 사망통계자료의 분석 ③ 국민의료보험공단 심사자료의 분석 ④ 소방본부의 전국통계자료의 입수 및 분석 등을 시행하였으며, ⑤ 응급의료기관들을 대상으로 실태파악을 위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.

**결과:** 중독에 의한 년 사망은 3,365건으로 전체 사망의 1.4%에 해당하며, 그 중 고의적자해에 의한 경우가 61.2%이었고, 중독물질별로는 살충제에 의한 고의적자해가 35.6%로 가장 많았고, 고의에 의한 기타 상세불명의 화학물 및 독성물질에 의한 중독으로 24.2%로 나타나, 화학물질에 의한 자의 중독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. 중독사망율은 전국평균 7.5/10만명이나, 대도시 지역에 비해 도 지역에서는 현저히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. 의료보험자료와 소방자료를 통해 본 발생양상은 다음과 같다. 의료보험자료('97)에서 중독의 전국규모는 56,654건으로 집계되며, 119 활동의 전국집계('97)는 18,496건 이었다. 이들을 연계 분석하면, 가장 흔한 상병은 독액성 동식물과의 접촉에 의한 중독작용이 54.2%였으며, 살충제(11.8%), 유해식품(10.2%), 기타 약물, 알콜 등의 순으로 많았다. 119 자료는 가정에서 발생한 것이 71.8%였으며, 중독이 발생하는 시간대는 저녁 8시부터 자정사이가 전체의 1/4을 차지하였다. 의료보험자료상에 나타난 중독에 의한 국민의료비지출은 약 82억원이며, 건당 평균 의료비지출은 144,000원이었다.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, 중독에 대한 체계적 관리의 필요성은 인정하나, 의료기관의 대응태세는 아직 현저히 미흡한 수준에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, 중독물질에 대한 정보, 해독제의 확보, 중독물질 분석체계 구축등 정책적인 배려를 요구하고 있다.

**결론:** 이상과 같이 제1차년도 연구 결과로 이제까지 집중적인 관심이 아쉬웠던 국내 중독발생의 현황을 많은 부분 파악할 수 있었고, 이는 향후 중독 관련 연구와 중독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 및 사회적 관심을 제고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.